

## 카를로 몰리노의 공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 주요 작품의 개념적 전제와 계획적 전략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thods of Spatial Composition in the Works of Carlo Mollino - Based on the analysis of conceptual investigations and design strategies -

김 일 현\*  
Kim, Il-Hyun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method and strategy of spatial composition in the selective works of Italian architect Carlo Mollino. With the continuous renovation of the interpretative frames and method on modernity and in particular on the spatial phenomenon, works of Mollino, once disregarded by the historiography and evaluated for its peculiarity, emerge as important architectural phenomenons. The intrinsic value in his works also enable to comprehend the complexity and multiplicity of modernit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order to achieve this preposition, six important works were analyzed with three key words,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process and the significance of each work and Mollino's contribution in the spatial composition of domestic and public spaces. Evaluation of the spatial strategies in conceptual investigations of Mollino had been underestimated to the relative poor conservation or incomprehension of various work, excluded from the categories of architectural elaborations. This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in the broad sense, the dialectical significance of modernity by emphasizing the aspects of his work related with Surrealism and vernacular tradition, as well as with its relationship with the various spatial dispositives.

Keywords : Carlo Mollino, Flexibility, Mobility, Expansion, Dominion, Vernacular, Mobile Furniture

주요어 : 카를로 몰리노, 가변성, 이동성, 확장, 영역성, 토착성, 가구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건축과 도시 그리고 조경과 같은 학문의 분류로 인해서 그 동안 분리되었던 영역이 학제적 작업과 교류로 인해서 새로운 작업의 장을 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상과 공간 그리고 장소의 복합적인 성격과 다중적이며 혼성적인 의미에 대해 개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분야간의 탐침과 과거의 사례에 대한 시각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진행되는 시각과 관점의 변화는 역으로 그 동안 양식과 사상 그리고 세대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석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였다. 객관성과 일반성을 중시하는 해석의 틀은 입장의 선명성을 위해 그 틀을 벗어나는 현상을 제외하고 평가절하하는 선택을 취해왔다. 근대건축운동이라는 개념도 입장의 공통분모를 강조하면서 그 동안 근대 건축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복합적인 역할에 대해 그 역할을 소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순차적으로 이와 같은 선형적인 역사적인 분류와 구분으로 제외되었던 작품과 건축은 이제 새로운 이해와 평가

의 대상으로 재발견되기 시작하였다.<sup>1)</sup>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카를로 몰리노는 앞서 언급한 전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그는 스키와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를 직접 설계하고 각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고, 문학작가 사진가 그리고 건축가와 가구 디자이너로 각광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혼성적인 활동을 동시에 추구했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사의 지면에서 대부분의 경우 배제되거나 생략되었다.<sup>2)</sup> 위의 역사가들의 선택이 입장의 명료함이 요구되는 당시의

1)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980년대의 근대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진행되었고, 현대예술사의 분야에서는 로사린 크라우스와 조나단 크래리를 비롯한 학자들의 기여가 두드러진다: Rosalind Krauss, *The Originality of the Avant-Garde and Other Modernist Myths*, Cambridge, MA, MIT Press, 1986; Jonathan Crary, *Suspensions of Perception: Attention, Spectacle,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1999.

2) 건축역사가 페브스너나 기디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사한 작업을 시대정신과 역사적 합법칙성을 전제로 수행하였다. 근대건축의 역사화 작업에서 선명한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안토니오 산텔리아(Antonio Sant'Elia)나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그리고 oZ지그(Poelzig)와 멘델스존(Mendelsohn)과 같은 건축가들은 배제되었다.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the Modern Movement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 Faber & Faber, London 1936.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Cambridge, Mass., 1941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건축대학원 조교수

시대적 상황의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성과 탈근대에 대한 철학-문화적 담론의 기여로 인해서 이제는 진보성과 일관성보다는 복잡성과 모순 그리고 이면을 통한 다중성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sup>3)</sup> 급변한 현 상황에서 제약적이고 한정적인 해석을 통한 오브제 중심으로 한정되는 해석에서 특이성과 구체성을 포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sup>4)</sup>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건축가 몰리노의 계획과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의 사고방식과 의도 그리고 계획의 전략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건축공간의 구성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건축가 몰리노의 건축을 일반적으로 고찰하거나 특이한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선별된 문제작을 중심으로 공간의 구성의 전략과 방법의 분석을 시도한다. 나아가서 분석에서 도출된 논제를 중심으로 공간의 개념적 의미와 재현의 전략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 개인사에서 시대적 정황 그리고 공시적 교류와 통사적 의의와 연관관계를 밝히고, 개별적인 작품이 내포하는 복합적인 공간의 의미를 평가한다.

논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약된 범위에서 공간의 극대화를 모색한 밀러 주택(Casa Miller)과 데발레(Casa Devalle) 주택을 도면과 실현작 그리고 사진을 통한 표상을 통해서 분석한다. 두 번째로, '곡물창고 내의 작은 집에 위치한 침실'과 국영 정유공사 아지프(AGIP)의 선전매체인 '누베 다르첸토'를 분석함으로써 장치와 기제로써의 건축을 통한 공간의 투사적 성격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토리노 마사회 회관과 스키 및 산악 휴게소를 분석함으로써 토리노의 지역적 전통과 토속적 건축의 거주공간의 해석방식과 혁신적 의미를 그의 태생지인 북부도시 토리노와의 문화적인 관계와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몰리노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편으로는 실현된 그의 대표작이 철거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건축분야 밖에서 진행된

그의 작업을 건축과 연관지어 해석하기 보다는 배제하였다. 다른 말로 그가 계획한 건축적 장치가 영구성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도면의 분석과 표현의 의도와 기법에 대한 이해는 계획안의 물리적 실현과 향존을 넘어선 의의를 밝히기 위해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주요한 개념을 기초로 하는 작품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근대성의 양면성과 변증법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현대문화의 현실태의 복잡성의 이해에 그 실질적인 의미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제약과 확장

### 1. 밀러 주택(Casa Miller)의 내부공간 계획 1938

1938년에 밀러 주택에서 주어진 과제는 비교적 평이한 주거공간 내부의 전반적인 계획이었다. 주거단위의 규모로 제약된 공간에서 몰리노는 다양한 장치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구체적인 개성을 부여하고 총괄적인 분위기를 구현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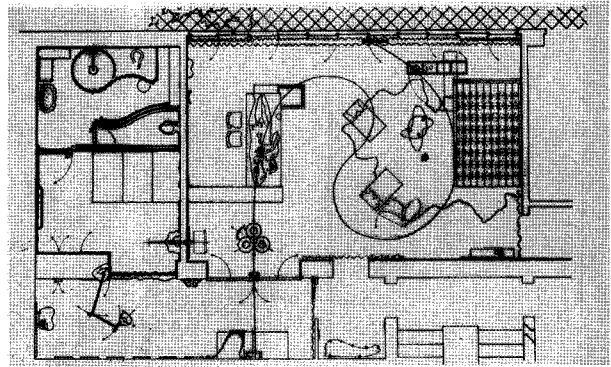


그림 1. 밀러 주택의 평면도

평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밀러 주택은 다른 집들과 계단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단위의 주거공간이었다. 주택의 공간적 구획은 다음과 같다: 입구를 진입하고 나면, 구획된 전이공간이 위치한다. 이 곳에는 유리판으로 제작된 테이블이 가는 철제로 지탱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의 파편의 일부가 놓여있다. 테이블의 하단부에는 말의 흉상이 마치 바닥을 관통한 모습으로 놓여있고, 테이블이 부착되어 있는 벽체에는 수공예로 제작된 시계가 위치한다<그림 2>. 이 공간은 한편으로 침실과 화장실로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실로 이어진다. 침실은 반투명한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이중성을 표명한다. 입구의 상단부는 거울로 마감되어 있고 천정부에 부착된 전등을 반사하게 되어있다<그림 3>. 침대실의 뒤편에는 가장 은밀한 화장실이 놓여있다. 르 꼬르뷔제가 빌라 사보아와 그 밖의 저택의 평면구성에서 활용한 곡면이 세면대와 변기가 위치한 공간을 양분한다. 거실의 구석에는 침대가 놓여있고 그

3) 특히 이성의 양면성에 철학적 사유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급격하게 표출되었고, 이후에 탈구조주의의 학문적 기여로 정착되었다.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2000 (원제: L'Archeologie du Savoir, 1969); 미셸 푸코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3 (원제: Histoire de la folie l'ge classique 1961)

4) 1989년에 토리노의 몰레 안토넬리안나(Mole Antonelliana)와 파리의 폼피두 센터(Centre Pompidou)에서 동시에 몰리노 전시회가 기획된 바가 있다. 1973년에 몰리노가 사망한 이후에 그 동안 그에 대해서 침묵했던 학계에 비해서 대규모의 전시회를 기획한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 전시회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주류에 비해 특이한 인물을 소개하는 데에 비중을 둔 한계도 지적할 수가 있다. 이 계기로 출판된 카타로그는 다음과 같다. L'etrange univers de l'architecte Carlo Mollino, Edition du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1990.



그림 2, 3, 4 밀러 주택의 내부 사진

옆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있다. 침실은 입체적인 천으로 표면이 처리되고 동일한 공간의 반대편에는 유리판으로 제작된 테이블 그리고 그가 제작한 소파가 배치되어 있다. 테이블과 소파의 측면에는 단일한 구조로 지탱되는 소품보관함이 투명한 유리로 제작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미로의 비너스 실루엣을 인용한 거울이 부착되어 있다<그림 4>.

도면에서도 전체공간을 관통하는 곡면이 두드러진다. 사진을 통해서 그 사물이 전동으로 이동이 가능한 램프임을 알 수 있다. 고르뷔제가 계획한 베스티기 Bestigui 저택의 옥상에서와 동일하게, 몰리노는 원격조절이 가능한 기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위치에 따라 내부의 조명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조명기구는 전체공간을 통합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여러 사진에서 관찰 할 수 있듯이 조명장치의 위치에 따라서 개별적인 공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바뀌게 된다. 공간의 계획뿐만 아니라 빛의 근원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주택의 내부공간은 가변적인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그림 5>. 조명기구는 다섯 개의 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는 천정을 향한 간접조명을, 그리고 아래를 향하는 나머지 하나는 방향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림 5, 6, 7. 거실에 다양하게 위치가 변경되는 조명기구

밀러주택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규정하는 방식은 조명기구뿐만 아니라 벽체를 감싸는 천의 활용으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벽에 부착된 이차적인 요소는 한편으로 폐쇄적이고 제약적인 공간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택 내부 공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재귀적인 영역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조명과 직물에 의해 부여되는 전체공간의 단일성은 개

별적이고 단편적인 사물의 병치로 세분화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거실에 위치한 침대의 반대편에 놓인 테이블의 처리방식이다. 1930년대 말에 실현된 것을 무색할 정도로 혁신적인 방식으로 거대그래픽(Gigantografia)이 투명한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다. 평면에 그려진 형상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다름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1513-16년에 걸쳐서 제작한 '죽어가는 노예'임을 알 수가 있다.<sup>5)</sup> 그러나 몰리노는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인용하기 보다는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관찰자에게 이질적인 인지의 경험을 유도한다. 본래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조각은 대지에 수직적으로 세워졌지만, 몰리노는 이를 90도 회전하여 테이블에 놓고 입체를 2차원적으로 재현하여 인용을 통한 본의의 변형을 시도한다.



그림 8, 9, 10.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

<그림 11>은 몰리노가 밀러 주택에서 활용하는 투명한 유리나 반사하는 거울 그리고 그 내에 투영된 그리스-로마와 르네상스의 조각의 단편, 전체공간을 감싸는 직물과 선택적인 조명을 가능하게 하는 전등과 같은 모든 장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12>는 주거공간이 완성된 이후에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사물의 배열을 비롯한 상세를 조절하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림 11, 12. 전이공간과 사물을 배열하는 몰리노의 자화상

밀러 주택은 일시적으로 구성된 유목민의 천막에거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러한 성격은 침대 위의 천정에 부착된 막의 활용으로 더욱 극대화된다.

5) Michelangelo Buonarroti, Dying Slave, 1513-16, 대리석, 규모 229 cm, 루브르 박물관 소장,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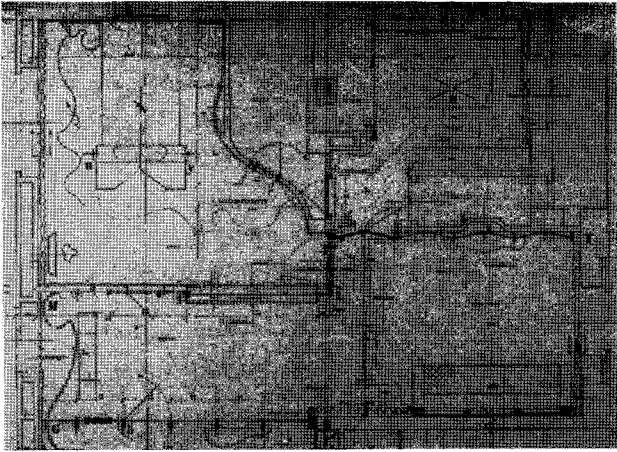


그림 11. 데발레 주택의 평면도

2. 데발레 주택(Casa Devalle) 내부공간 계획 1939-40.

1939-40년에 계획된 주택의 건축주는 물리노의 절친한 친구 조르지오 데발레(Giorgio Devalle)였다. 밀러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는 매우 협소하며 외부공간과 단절된 내부의 주거공간의 디자인을 의뢰받았다. 밀러 주택의 작업을 완결한지 1년 후에 시작된 이 계획에서 물리노는 기존의 시도를 인용하면서도 상이한 요소를 도입하여 개성이 부여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 개별적인 공간을 조명기기의 곡면으로 통합했던 밀러 주택의 전략과는 달리 물리노는 데발레 주택에서 거울을 활용하여 시각인지의 교란을 극적으로 도모한다.

평면을 살펴보면, 데발레 주택도 평이한 계단을 통해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밀러 주택의 협소함과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널찍한 전이공간이 할애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침실과 부엌, 그리고 거실의 공간적 구분과 연관된다. 도면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열려진 공간은 문과 미닫이창으로 개방과 차단을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건축주의 이러한 가변성에 대한 요구로 불가피하게 대면해야 하는 바는, 유발되는 협소한 공간의 폐쇄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물리노는 부분적으로 이전의 주택에서 활용된 직물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표면에 거울을 부착한다. 그리하여 내부의 공간은 반사에 대

한 반사의 효과로 인해서 무한대로 증폭된다(spatial dilatation). 근대건축의 옹호자들이 물성의 진실성을 부여했던 유리와는 달리 거울은 효과를 통해 무한적으로 확장되는 가상적인 공간을 구현하였다<그림 12, 13>.

내부공간에 거울을 사용하는 방식은 도심지의 놀이공원 에서 흔히 사용된 미로와 향선의 칸막이 객실 그리고 승강기 내부에서 폐쇄공포증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활용된 방식이다. 나아가서 물리노는 향선의 객실의 효과를 구체적인 상세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제로 침실의 육중한 느낌을 주는 문과 타원형의 창은 독립적인 공간의 성격을 부여한다. 다른 말로, 방안에 있는 또 다른 방의 기분을 연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밀러 주택에서 활용되었던 직물로 구성된 커튼의 역할도 데발레 주택에서는 수정된다. 팽팽하게 잡아당겨져서 천장을 연상시켰던 이전의 기법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직물을 곡선을 따라 배치함으로써 내력벽체에 대한 독립성은 물론 내부공간의 자율성과 개구성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물리노는 재료의 물성 자체를 반영하기 보다는 구획을 위한 조작과 효과를 위한 활용을 통해서 거울과 직물에 상이한 역할을 부여한다. 현대건축에서 상선과 객실은 그 기계적인 완결성과 정밀함으로 인해서 르 꼬르뷔제를 비롯한 전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적지 않게 인용된 바가 있다. 자동차나 배로부터 추론되는 유추적인 기계미학은 퇴행적인 역사나 전통과 거리를 취하는 형태적 구성의 준거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거공간을 심리적으로 이질적인, 다른 말로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여행을 떠나서 잠시 머무는 호텔이나 선상에 있는 듯 한 기분은 벽체와 천정을 마감한 볼륨이 있는 쿠션으로 더욱 증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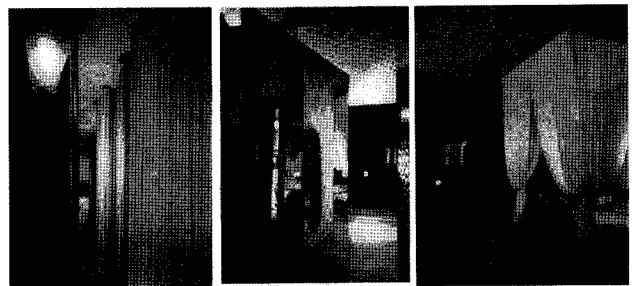


그림 14, 15. 곡면의 벽면, 침실 문과 침실의 전경



그림 12, 13. 거울을 통한 내부공간의 반사

일반적으로 공간의 규모에 대한 인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인간적 스케일’의 사물을 배치한다. 그리고 국제주의 양식으로 구분되는 대부분의 저택은 일관적인 벽체의 마감이나 유사한 개구부의 배열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반면에 물리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질적이고 혼성적인 사물을 배열함으로써 단일한 공간의 인지에 대한 혼동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매너리즘과 바로크에서 흔히 사용되던 기괴한 형상의 도입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균질화되는 공간을 분절하고 특화한다. 그는 건축계획과 외부의 마감에서 역사적이며 고전주의적인 요

소를 배제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그가 동시대의 이탈리아 합리주의자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공간에서 적지 않은 고전주의적 요소를 차용한 형태를 목격할 수 있다. 이질적 요소의 통합 그리고 혼성적 공간의 구축은 이 두 저택 뿐 만 아니라 몰리노가 계획한 대부분의 건축을 성격지우는 바이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이 근대건축운동이나 모더니즘의 틀에서 볼 때에 예외적인 것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보다 역사적인 원리와 연관된다. 바로 “대조적인 요소가 일시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조화이다”라는 르네상스 초기에 통용되었던 ‘조화’의 정의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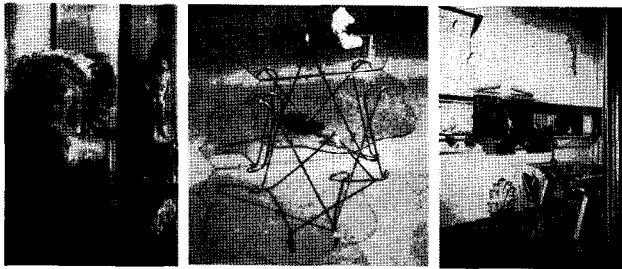


그림 16, 17, 18. 내부에 배열된 소품

#### 4. 몰리노와 초현실주의

앞서 거론한 두 주택에서 몰리노가 추구했던 이상을 이해하려면 그가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차원에서 초현실주의와 맺은 관계의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초현실주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안드레 브레통 (Andre' Breton)의 ‘초-현실’에 대한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나는 미래에 외형적으로 그렇게도 모순적인 꿈과 현실이라는 두 상태가 미래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다. 말하자면 일종의 절대적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초현실성을 통해서 말이다.”<sup>6)</sup> 브레통을 비롯한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바는 바로 이렇게 이성의 미명하에 진보만을 강조하고 일상의 다중성을 제약했던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통합이며 총체적인 현실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프랑스와 국경에 위치한 토리노에서 몰리노는 초현실주의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가 데발레 주택에 계획한 침실을 구성하는 요소는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의 소파의 직접적인 인용에서 극적으로 가시화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집착한 달리의 페티쉬 (fetish) 를 몰리노는 공유한다. 달리는 1935년에 여배우 웨스트 (Mae West)의 형상을 주제로 초현실적인 주거공간을 재현한다. 그리고 다음해에 2년에 걸쳐서 입술 부분을 모사하여 소파를 제작한다<그림 19, 20>. 신체의 일부인 입술을 추출하여 자율적 이미지로 표현한 전례로는 맨 레이 (Man Ray)의 1930년 사진 작품이 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차이로 몰리노는 맨 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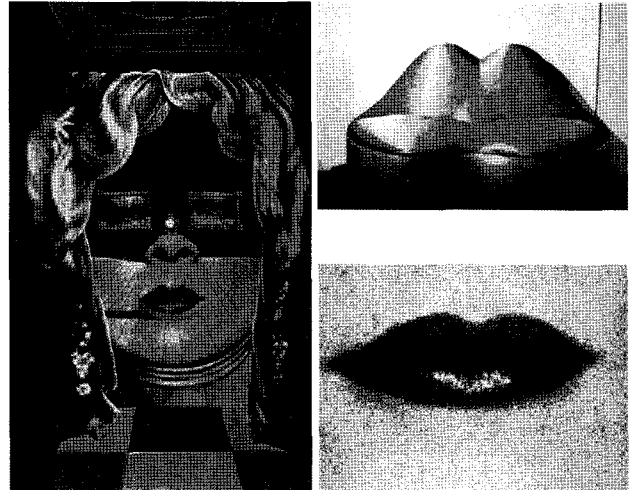


그림 19. Salvador Dali, Face of Mae West 1935.

그림 20. Salvador Dali, Mae West's Lips sofa 1936-37.

그림 21. Man Ray, Untitled, 1930.

와 살바도르 달리의 영향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셈이다. 이렇게 단시간에 초현실주의자들의 영향을 몰리노가 주거 공간의 구성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그의 지속적인 역사적 전위주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그는 소수의 초현실주의 열성주의자로 국한되었던 기관지 <미노타우르> (Minotaur)의 정기구독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달리와 몰리노의 소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달리는 핑크빛 실크를 주제로 사용하였고, 아랫입술과 구분되는 하단부에 오렌지색을 적용하였다. 반면에 몰리노는 녹색 벨벳을 주제로 사용하고 입술과 하단부의 구분을 최소화하였다. 표면의 처리에 있어서도 상이한 재료의 활용은 차이를 가져온다. 달리의 매끄러운 실크의 전형적인 효과를 통해 형상과 시각적 촉각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달리를 수용하면서 몰리노는 부드러움과 동시에 거친 표면에 가구제작에서 사용되는 엠보싱을 적용한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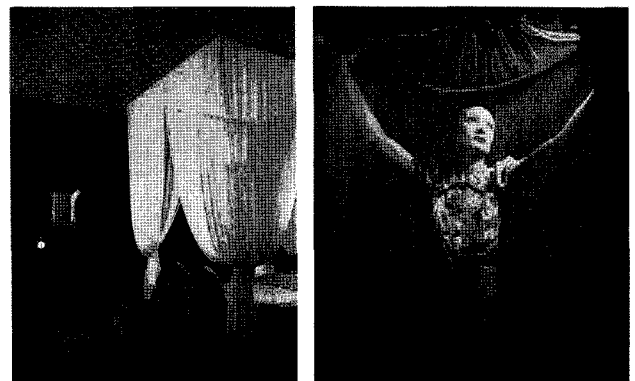


그림 22. 몰리노의 데발레 주택의 침실.

그림 23. 몰리노의 연출사진.

몰리노는 밀러와 데발레 주택을 사진작업의 배경과 장소로 자주 활용하였다. 실제로 그는 예술사에서 전문가

6) Andre Breton, Manifesto of Surrealism 1924.

진작가와 가구 디자이너로 더욱 알려져 있기도 하다. 특히 여성모델의 신체 그리고 유리, 거울, 벨벳 등의 재료로 구성된 공간이 이국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연출에 초점을 맞췄다. 재질의 물리적인 효과와 개념적인 환상의 조합을 통해 자폐적이지만 무한하게 확장되는 주거공간의 추구는 설득력을 보여주면서 구현되었다.<sup>7)</sup> 이질적인 사물의 배열로 혼재되는 상상과 실제의 공간에 대해서 맨 레이는 ‘애정 어린 사물’(Objects of affection)이라는 제목의 사진작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제약된 공간의 무한한 확장과 혼성적 표면의 공존은 앞서 언급한 소품들과 함께 물리노의 두 주거 공간 계획을 특징짓는다<그림 24>. 3차원적으로 이러한 거주공간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으로는 <미노타우르>에 개재된 칠레 태생의 초현실주의자 로베르토 마타의 그림이 있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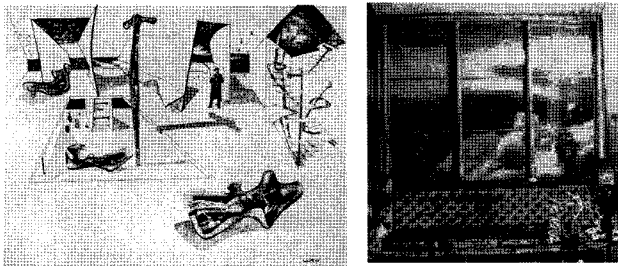


그림 24. Roberto Matta Echauren, *Mathematique sensible architecture du temps, minotaure* 1838.  
그림 25. 데발레 주택의 거실과 창으로 처리된 벽면.

### III. 영역성과 일시성

#### 1. 가구디자인과 거주 공간의 특성화

소품의 배열과 소재의 혼용과 함께 물리노의 작품세계는 물론 거주 공간구성에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바로 가구가 있다. 그는 신체의 형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형태를 조형화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본래 ‘이동성’을 의미하는 가구(Mobil)은 오브제뿐만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1940년에 물리노는 건축전문지 <도무스>(Domus)의 편집장이자 밀라노 공대 건축과 교수,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친구 지오 폰티(Gio' Ponti)의 자녀들을 위해 의자를 디자인한다. 지지체와 등받이 그리고 안장의 차이를 재료와 형태의 대조관계로 구성되는 특유한 이국적 성격과 관능적인 면모를 구현한다.

물리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의 이동성과 배치에 의한 공간의 특성화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공간과 가구의 관계는 신체와 동물적 골격에서 유추된 곡면의 역동적인 형태로 표상된다.

7) Fulvio e Napoleone Ferrari, Carlo Mollino: fiabe per i grandi, 1936-1943, Motta, Milano 2003. 최근에는 회귀본으로 남았던 그의 폴라로이드 사진집이 재편집되어 출판되었다. F.Ferrari, Polaroid, Umberto Allemandi, Torino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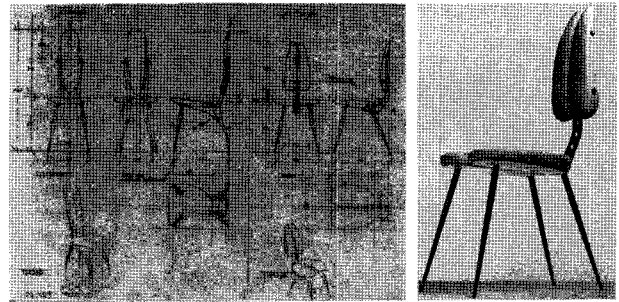


그림 26, 27. 리사와 루이지 리치트라(Lisa &Luigi Licitra)를 위한 가구의 도면과 사진.

그의 가구 제작기법은 압축합판에 미리 압력을 가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되지만 형태적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선을 도입하여 구축적으로 역동적인 모양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1950년에 ‘아라베스크’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테이블은 그가 평생 거장으로 흠모했던 안토니 가우디의 영향이 엿보인다<그림 28>. 반면에 그보다 2년 전에 토리노의 보험회사를 위해 설계한 책상은 매우 건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그가 중시한 영역성과 이동성의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서랍과 테이블 판을 노드로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부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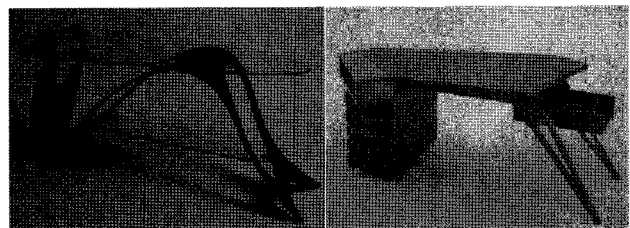


그림 28. ‘아라베스크’ (Arabesque) 테이블. 1950.  
그림 29. 토리노 보험회사 ‘레알 무투아’(Reale mutua Assicurazione)를 위한 책상. 1948.

#### 2. ‘곡물창고 내의 작은 집에 위치한 침실’ 1943

이미 밀러 저택의 전동램프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물리노는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 사물자체가 이동하여 일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앞서 가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 자체가 곡면이나 사선의 도입으로 역동성을 표상하는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성의 성격을 갖는 사물의 구현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사례로는 침실에 놓일 것을 전제로 착안된 ‘프시케 서랍’이라는 제목의 가구 계획안이 있다<그림 30>.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화장대 앞에 홀로 앉아있는 여인을 위해 구상된 이 계획안은 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혼재되는 상태에 대응하는 사물을 목적으로 한다. 차후에 살펴볼겠지만, 이와 같은 ‘고독한 상태’는 그가 즐겨했던 스포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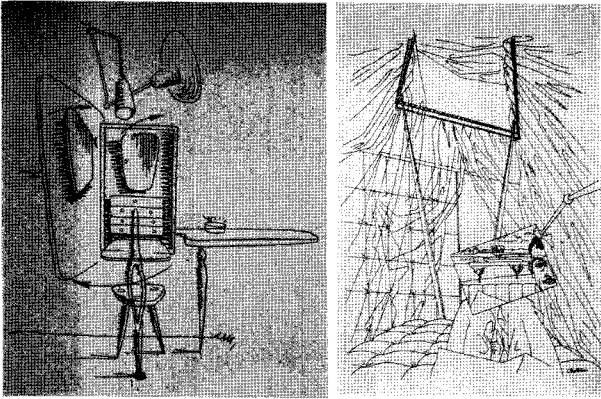


그림 30. '프시케 서랍'(Armadio psyche)  
그림 31. '곡물창고 내의 작은 집에 위치한 침실' 1943.

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는 이러한 상태가 그가 초현실주의의 통합적인 현실과 마찬가지로 신체와 정신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였다<그림 30>.

동일한 전제에서 1943년에 몰리노는 지오 폰티의 의뢰로 '곡물창고 내의 작은 집에 위치한 침실'을 설계하고 <도무스>에 게재한다. 이 작은 공간은 러시아의 전통인형 마트리오슈카(matryoshka)로 연상시키는 중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천막에 가까운 한시적인 구조체 주변에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커튼을 둘러치고, 천정부지는 개방하여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점이다. 실현된 이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스케치를 통해서 스탠드 조명의 부재에 거울을 부착시켜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머리 위의 창을 통해 반사된 풍경을 스케치할 수 있는 특이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목민의 주거를 다분히 연상시키는 이 작은 은신처는 한편으로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파시즘 말기에 그가 선호했던 삶의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그림 31>.

### 3. 국영 정유회사 아지프(AGIP) 전시차량 '누베 다르젠토'(Nube d;Argento) 1954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약 10년에 걸쳐서 국가의 재건이 어느 정도 실현된 시점에 기업들은 디자이너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선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기업과의 관계는 주로 홍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시에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로는 국영 철강회사 브레다와 장기간동안 협력하여 밀라노 국제박람회장에 전시관을 계획한 루치아노 발데사리가 있다.

몰리노는 1954년에 이탈리아의 정유회사 아지프(AGIP: Azienda Generale Italiana Petroli)의 의뢰로 전국을 이동하면서 회사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차량을 설계하게 된다. 자동차 광고인 동시에 직접 스포츠카를 설계했던 몰리노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동과 고정성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중과 접촉하는 대체로 차량을 설계하고 '은빛 구름'을 뜻하는 '누베 다르젠토'(Nube d;Argento)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 기회를 통해서도 그는 이동성과 영역성



그림 32, 33. '누베 다르젠토'의 외관과 전개된 광고물이 배치되어 전시되는 광경.

이라는 기계와 가구에 대한 평소 관심사의 조형화를 모색한다<그림 32, 33>.

볼셰비키 혁명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이 제작했던 선전 장치를 연상시키는 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파발리온의 성격을 띤다. 관람자가 아니라 매체가 이동하고 일시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호소와 설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자동차 자체도 왜곡된 타원이나 사선과 같은 모양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방한다. 이로써 그가 곡물창고의 침실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던 공간 개념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 IV. 전통과 혁신

기능주의 접근과 전제를 달리하는 공간구성 방식을 위한 몰리노의 주요한 작품으로 토리노의 마사회 회관과 살리체 돌씨오(Salice d'Ulzio)에 위치한 스키 및 산악 휴게소가 있다. 이 두 작품은 경마와 스키 그리고 산악이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상과 유희의 구분을 해소하고자 했던 그의 생활철학을 반영하며, 그는 이러한 입장을 각 작품을 통해서 조형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 1. 토리노 마사회 회관(Societa' Ippica Torinese, Torino), 토리노 1936-39

이 건물은 가운데에 축을 구성하는 통로를 중심으로 세 개의 매스가 병치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면의 왼편에는 마구간이 있고, 오른 편에는 사무공간과 그 배면에는 실내 경마훈련소가 위치한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성에서 몰리노는 단일한 언어로 전체 콤플렉스에 균일한 성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시설의 개체성을 존속시키는 선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조감도를 통해서 보이는 모습은 여러 건물이 하나의 커다란 건물을 구성하는 집적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그림 34, 35>.

정면의 구성에서도 그가 밀러 주택과 데발레 주택에서 시도한 상이한 소재와 사물의 배열로 내부공간을 구성했던 원칙이 반영된다. 페라라에 1492년에 건립된 비아조로세티(Biagio Rossetti)의 다이아몬드 궁을 인용한 외벽 마감은 콘크리트와 유리블록으로 마감된 좌측의 매스와 대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그림 36>.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는 관계는 우측 건물의 상하부에도 존재한다. 하단 부는 창 부분을 제외하고 거대한 기단을 연상시키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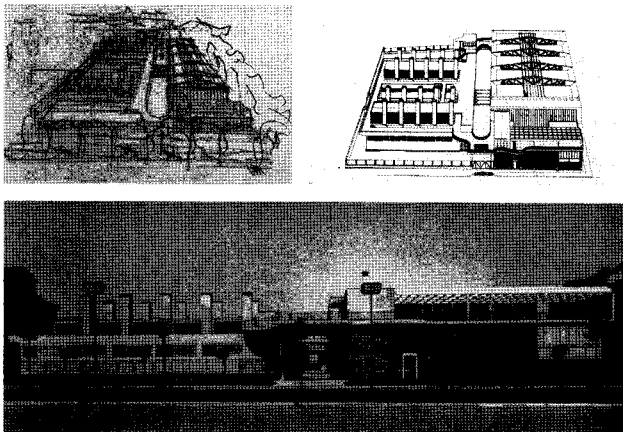


그림 34, 35. 마사희 회관의 스케치와 조감도.  
그림 36. 완공된 마사희 회관의 정면 광경.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정면은 물론 하늘을 향해서 개방된 그리드로 구성된 페르골라가 무주의 방식으로 놓여있다. 결과적으로 역사주의적 인용이 배제된 절충적인 양상을 띠고, 근대건축의 특정한 경향이나 양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모호성도 표현한다. 그러나 몰리노는 밀러 주택에서 전동램프의 곡선레일로 분할된 공간을 통합했던 바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면모를 띠는 개별적인 매스를 곡면 테라스로 통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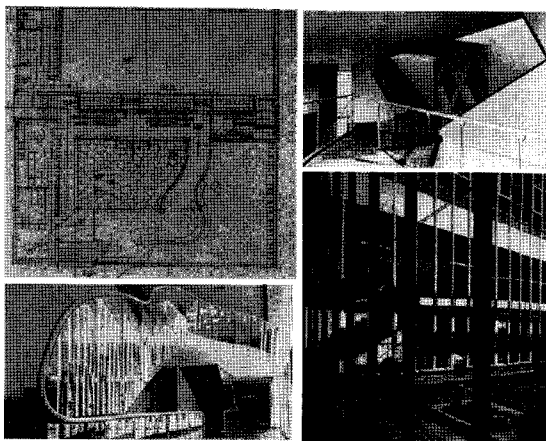


그림 37, 40. 우측 사무동 평면과 중정 사진.  
그림 38, 39. 계단부 하층부와 상층부 상세.

마구간은 최대한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과 환기 그리고 배식이 동물의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배려하도록 계획되었다. 중앙부의 통로는 기수가 말을 외부에서 산책을 시키거나 실내 훈련장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간구성의 역동성은 중정과 사무실의 실내에서 두드러진다. 중정을 감싸는 영역은 정형의 사무공간을 제외하면 최대한으로 공간의 흐름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7>. 이에 도달하기 위해 몰리노는 중정의 한 면을 곡선으로 처리하고, 그 후면에 있는 벽체 또한 자유

곡선을 설정한다. 중정 내부에는 작은 연못과 이색적인 사물인 해마가 놓여있고<그림 40>, 수직 동선을 해결하는 계단의 마감 역시 물고기의 비늘을 인용하여 곡선튜브로 마감된 가드레일에 부착되어 있다<그림 38>. 그리고 상층부의 계단실에서 실내 훈련소를 관찰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트러스로 구성된 개구부를 할애하였다<그림 37>.

2. 스키 및 산악 휴게소 계획(Stazione-Albergo al Lago Nero, 살리체 들싸오, 토리노(Salice d'Ulzio) 1957-57

산악도시 토리노의 주변에 많은 스키 관련 시설이 있으며, 몰리노는 근접한 북부지방에 한 시설을 계획하게 된다. 지역성과 토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던 결과를 이 건물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현대 건설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종합하였다. 건물의 중상층 부는 오랜 시간 동안 목조로 건물을 지은 지역의 공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층부는 표현적인 구조 체의 테라스와 간결하게 마감된 콘크리트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주 내부공간은 조립식 부재가 가구식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휴게실로 활용되는데 마치 커다란 나무상자와도 같다. 그 위에 놓인 상층부는 산악인이 단기간 도안 기거할 수 있는 객실이 마련되어 있다. 지붕은 폭설을 고려해서 경사가 주어져 있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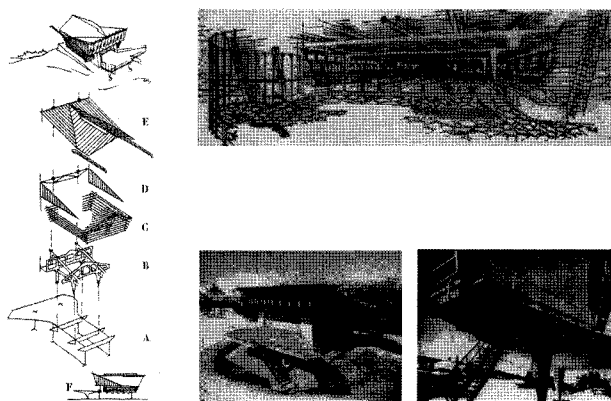


그림 41. 구조와 공간구성의 다이어그램.  
그림 42. 중층부 스키 및 산악 휴게공간 투시도.  
그림 43. 건축물의 전경  
그림 44. 테라스의 상세 사진

이 건물은 재료의 사용과 구조의 형태에서 당시 이탈리아에 브루노 제비를 통해 확산된 '유기적 건축'의 성격을 반영한다. 이 건축물의 공간과 구조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몰리노는 다이어그램을 제작하였고, 효율적으로 개별적인 층이 중첩되는 방식을 묘사하였다<그림 41>.

VI. 결 론

몰리노가 계획한 토리노 마사희 회관은 1960년에 토리



노가 국제 엑스포 '61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전차정류장을 동일한 장소에 계획하면서 철거되었다. 스키 휴게장도 유사한 상황을 직면했다. 몰리노가 당대에 최고의 건축가 중의 한명으로 주목되었지만, 이후에 현대건축사에 거의 거론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 그가 건립한 많은 건물들이 동의 없이 변형되거나 철거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그가 개인적인 창작에 몰두하면서 건축계의 조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비행기, 가구 디자인과 사진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그의 활동이 비건축적이라는 이유로 고찰의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의되는 건축의 영역과 관련된 담론과 철학적 사유 그리고 이론적 방법론을 통해서, 오히려 비건축적으로 분류되는 사물과 산물이 공간에 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장치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몰리노의 여섯 개의 작품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몰리노가 한정된 공간내에 사물의 배열과 소재의 도입 그리고 대립적인 효과의 설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에서 내외부 공간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의 건축이 직접적으로 초현실주의와 갖는 관계도 파악하였다. 그의 건축은 현재 논의되는 대상과 공간의 이해를 확장하는 새로운 해석에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 참 고 문 헌

1. Pevsner, N. (1936), *Pioneers of the Modern Movement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 (London, Faber & Faber).
2. Giedion, S. (1941),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3. Mollino, C. (1948), *Architettura, arte e tecnica* (Turin, Chi-antore).
4. Brino, G. (1985), *Carlo Mollino. Architettura come autobiografia, architettura, mobili, ambientazioni 1928-1973* (Milan, Idea Books).
5. Tafuri, M. (1986), *Storia dell'architettura italiana 1944-1985* (Turin, Einaudi), p. 29.
6. M. Montuori (ed.), (1988), *Lezioni di progettazione. 10 maestri dell' architettura italiana* (Milan, Electa).
7. Carlo Mollino, 1905-1973, *Catalogo della mostra*, Torino, Mole Antonelliana 5 aprile-30 luglio, (Milan, Electa) 1989.
8. Centre George Pompidou. (1989), *L'étrange univers de l'architecte Carlo Mollino*, (Paris, Centre George Pompidou).
9. Tamagno, E. (1996), *Mollino: Esuberanze soft*. (Turin, Testo & immagine).
10. Cray, J. (1999), *Suspensions of Perception: Attention, Spectacle,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11. Ferrari F. & N. (2003), *Carlo Mollino: fiabe per i grandi, 1936-1943*, (Milan, Motta).
12. Foster, H. (1996),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接受: 2007. 10. 25)